

# 민주·한국당 “새 인물 어디 없소”...야권 “3지대서 모아자”

**총선 1년 앞 각 당 선거모드**

**민주당**

현역 페널티·정치신인 가산점  
이달중 공천률 최종 확정  
상반기 총선 기획단 공약 준비

**한국당**

공천률 개정 작업 착수  
청년·여성 인재 영입 나서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바른미래, 당내 갈등 절정  
평화당·바른미래 일부 회동  
'제3지대' 구축 당력 집중  
정의당, 7월 전대 후 본격화

**■ 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 가·감산 기준**

현역의원 경선원칙·정치신인 10% 가산 신설

대상	현행	개정안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	-10%	-20%
선출직공직자평자결과 하위 20%	-10%	-20%
경선 불복 경력자	-20%	-25%
탈당 경력자	-20%	-25%
징계경력자(제명)	-20%	-25%
징계경력자(당원자격정지)	-20%	-15%

**더불어민주당**

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현역 기득권을 낮추고, 정치 신인의 문턱을 낮췄다. 이로 인해 정치 신인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궐선거 사유를 만들거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자, 탈당 경력, 경선 불복 자들에 대한 감산 페널티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가 기획단은 가산·감산 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서 서류 점수와 경선 득표에 각각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비율을 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다수(안심번호 응답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상반기 중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총선 공약 준비 작

업에도 돌입한다.

민주당은 인재풀 확충에도 착수했다. 집권여당 당계 국정운영 경험 있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 차출론'을 띄웠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작업을 이끈 조수석을 앞세워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인 부산·경남(PK)에서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당으로 돌아온 청와대 1기 참모진들도 줄줄이 '출전'을 준비 중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인배 전 정부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의 출마가 예고됐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의 차출설도 함께 나온다.

한국당도 총선제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인재영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은 4·3 보궐선거 당일인 지난 3일 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천률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황교안 대표도 그동안 공식이었던 조국부총장 자리에 원영섭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을



문희상·이해찬 '화기애애'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농 김상현 선생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덕룡 전 의원, 문 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권노갑 전 의원. /연합뉴스

지난 11일 임명했다.

조국부총장은 내년 총선 국면에서 공천 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 역할을 맡아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이 같은 핵심 보직에 40대이자 원외 위원장인 원 부총장이 낙점됨으로써 한국당의 내년 총선 공천에서도 '수도권·청년' 표심을 겨냥한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또 당의 외연을 넓히는 문제와 관련, 인재영입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전국 각 당협위원회와 직능단체 등에 비당원을 중심으로 인재 10명 이상씩을 다음 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주요 영입대상은 청

년과 여성이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경우 당내 상황 등으로 비교적 준비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4·3 보선 참패 이후 내용을 겪고 있으면서 아직 총선 준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순화규 대표 퇴진 주장 요구에 손 대표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면서 바른미래당 내용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 호남 출신 국민당계 의원들과 평화당 의원들 간 '제3지대' 구축에 대한 균형을 지피지면서 원내 29석의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의 내년 총

선 준비는 더뎠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당의 경우 내년 총선에서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는 자체 판단 아래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계와 함께 '제3지대'를 구축하는 방안이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 각 지역위원회는 개편 대회 등을 마치고 조직 다지기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공천률 등 총선 준비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내달 총선 기획·전략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도부가 교체되는 7월 전당대회 이후 총선제도로 본격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정권 재창출 위해 민주당에 힘을”...“양당구도 깨트려야” 분분

시대정신 따라 표심 역동적...호남의 선택 주목  
경기 활성화·한반도 정세·'3지대론' 최대 변수

**호남 민심 어디로**

제21대 총선에 1년 앞두고 다가왔다. 각 정당들은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총선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고, 광주·전남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개혁 진영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역동적인 호남 민심의 선택은? 호남

민심은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시대정신에 따라 역동적 선택을 해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등 돌린 호남 민심이 전국적으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며 제3당 역할론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호남 민심은 '촛불 혁명'을 통해 형성된 '정권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다시 민주당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열하면서 호남 민심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제 21대 총선에서 호남 민심을 주목하고 있다. 우선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짐에 따라 '현 정권 중간평가'라는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침체된 경기와 어려운 민생경제, 정세 국면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연이은 인사 참사 등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0% 이상의 지지율을 민주당에 보냈지만, 지금은 50%대로 주저

앉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경기 부양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호남 민심도 등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재창출 vs 제3당 '수도권·청년' 총선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점도 있지만, 민주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조제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은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세력이 승리해야만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시대적 과제도 호남 민심의 '선택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 지지율에 관계

없이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국회에서 싸울필만 하는 거대 양당 구도를 깨트려야 한다는 지역 민심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호남 의원들 사이에 '제3지대론'이 형성되고 있다.

야당의 한 지역 국회의원은 "현재로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강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여권에 대한 더 실망감이 커진다면 내년 총선 상황은 가능하게 힘들 것이다"면서 "진보와 보수세력 간 갈등으로 국회가 민생 현안을 챙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야당이 호남 세력을 결집해 견제 세력을 만든다면 지난 총선에서의 바람이 다시 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남 민심이 이들의 '제3지대 통합'을 반긴지는 미지수다. 3년 전 총선에서 제3당 역할을 해달라며 밀어줬던 호남 민심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 민심은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이들은 다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열하면서 제3당 역할은 커녕 호남 정치의 물갈이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서다. 따라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소속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이 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할 지는 의문사되고 있다.

또 하나의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이 애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보수세력 결합하면 민주당 또한 반(反)보수세력 결집을 통한 인위적인 정계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1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17 12 point  
1 3 0 7 5 8 4 9 2  
116 10 point  
2 4 6 3 7 1 2 8 0  
115 8 point  
4 6 2 8 1 0 9 7 3  
113 6 point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